

남원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규모 506건 추진...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용배수로·회관·모정·창고 등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올 한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이 관여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올 한해 남원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모정, 창고 등 주민편의사업과 생활불편 민원 등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부터 주민이 참여해 시설개선 및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올해 남원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06건에 총 사업비 118억6,900만원 규모로, 11월 현재 480건의 사업을 완공하였고 공사 중인 사업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은 상대적으로

으로 넓은 시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생활불편 시설 및 120생활민원 봉사대에 접수된 주민생활민원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120생활민원 봉사대에 접수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생활민원은 시설탐에 바로 연계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함께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공사 설계부터

완공 때까지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천하는 등 공사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원주 시장은 "내년에도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학생들과 소통의 장 마련

황숙주 순창군수가 순창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행복한 소통을 만들기 위해 대화의 장을 열어 화제다.

최근 문화의집에서 열린 청소년과의 간담회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관내 중·고·고 1~3학년 학생, 군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군은 청소년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톡톡 튀는 제안과 진지한 건의사항으로 순창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

순창고 1학년 이준오 학생은 경천이나 일품공원 등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농구장 설치를 요구했다.

같은학교 1학년 조강의 학생은 국내 최대 자동차 관련 청소년대회인 '현대 자동차 청소년모험자동차대회'에 참가해 우승 경험도 있는 동아리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아

울러 제일고 2학년 우승진 학생은 지역 면단위 학생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황숙주 군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간담회에 나온 건의사항이나 제안들은 심도 있게 논의해 꼭 필요한 정책

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군의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제안된 25건의 건의사항은 각 실무부서의 의견을 거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읍,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임실읍은 26일 임실시장 장남을 맞이하여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위원과 임실읍 직원 20여명은 임실시장 및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동절기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하며,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이웃주민 등 누구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홍효택 임실읍장은 "추운 계절을 맞

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응정이 필요한 때"라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실읍사무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인 '희망2019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성금모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640-4011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선정

남원시, 집단급식소·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남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지원 및 식단개발 맞춤형문형지도, 위생관리 및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공개 모집에서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접수함으로써 지난 22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모기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에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급식관련 전문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특화 사업 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역 내 어린이 급식시설은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64개소, 지역아동센터 24개소 등 총 90개소로, 급식인원은 2,868명이며 남원시는 식약처에서 3년간의 평가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선정기관과의 협약체결 공증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3년간 운영을 위탁할 것"이라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생과 영양은 물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남원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송년회 등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의한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원경찰 관내 최근 3년 음주사고 현황은 2015년-37건, 2016년-22건, 2017년-15건, 2018년(10월 현재) 20건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다 다시 증가 추세 중에 있으며, 음주사망 사고자는 2015년-3명, 2016년-1명, 2017년, 2018년(11월)에는 0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전국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은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협력하여 3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특히, 남원시에서는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전 지역에 불시 진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단속을 피한다는 인식보다는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클린 순창 조성 '탄력'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반 운영·11개 읍면 60명 투입

순창군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면서 클린순창 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논·밭과 마을골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영농 폐기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나섰다.

이번 폐기물 수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82개 군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은 순창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순창 운동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깨끗한 순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은 각 읍면별로 5~6명씩 총 60명을 채용해 지난 15일에 시작해 다음달 22일까지 운영되며, 활동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장비 등이 지급될 계획이다.

신옥수 농촌개발과장은 "수거반은 우리 지역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경관조성은 물론 불법 소각을 차단해 산불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만 수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니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일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조상땀 찾기 서비스 호응

임실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땀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조상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294명에게 531필지(면적 57만1,580㎡)의 조상땀을 찾아줬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로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남원소방서는 비상구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 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고,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전라북도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확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